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 · 표시사항 위반

농관원, 8개 업체 위반사항 적발... 중금속 · 무보존제 표시 · 의무표시사항 위반 등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구매한 비율이 55.3%로 오프라인 구매 비율(4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관련기관(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농관원이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 7개소,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해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

과했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농관원은 이번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유해물질 기준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대표자 교육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튜브 활용 비대면 방식으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18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 대표자 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북 소재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 전환을 도와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현재 131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166명의 청년혁신가가 활동 중이다.

반기마다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대표자 교육은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인건 관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혁신가의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사업장의 대표자들이 전원 참여한 이번 온라인 소통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진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기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제팀(☎363-711-20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낙농 분야 디지털농업 현장전시회가 열린 18일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젖소농가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 착유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작동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로봇 착유기술 국산화 낙농산업 발전 앞당긴다

허태웅 농진청장, 경기 화성 젖소 사육농가 찾아 연구 현장 점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8일 경기 화성시 젖소 사육농가를 방문해 로봇 착유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연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허 청장이 방문한 젖소 사육농가(황곡목장)는 착유 전 과정을 무인화하는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현장 적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허 청장은 "농촌 인력난, 사료가격

상승, 부속도 검사 의무화, 폭염 등으로 인해 올해 젖소 사육농가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로봇 착유 기술의 국산화로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개체별 실시간 사료 급여량과 유성분 분석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축산농가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젖소 사육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국산 로봇 착유기의 가격 경쟁력과 기기의 완성도를 높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착유기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이용해 젖소 미리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육성우 및 착유우의 사육두수를 줄여 축산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 탄소저감 위한

'절전데이'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ESG경영 캠페인의 일환으로 탄소저감 활동을 위한 '절전데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절전데이' 캠페인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작은 행동의 시작으로, 매일 셋째 주 수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본점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소등하며,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본점 및 전 영업점이 동참해 전체 소등 및 멀티탭 전원 오프를 실시한다. 또 오후 7시30분 이후에는 본점 건물 전체 소등도 실시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연간 전력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일정 수준 줄어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지만 절전데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익숙해진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전북은행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생활 속 에너지 감축을 위한 '습관의 변화' 등 다양한 ESG관련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중소두부업체 48.1% "수입대두 공급물량 늘려야"

25.3%가 "연간 실수요물량 파악 다음해 수입량에 반영" 응답

수입콩 가격 등 업계의견 수렴, 수급문제 해소책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 수입대두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는 37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두부 제조업체 수입대두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 두부제조업체들은 업계의 안정적인 대두수급을 위해 시급한 정부 조치로 수입대두 공급물량 확대(48.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외에도 4분의 이상(25.3%) 업체가 '연간 실수요물량 파악에 다음해 수입량에 반영'으로 답했다.

또한 정부의 수입콩 물량 단계적 축소 계획과 관련, 향후 생산저질 최소화를 위한 정부 건의사항으로 '무리한 수입대두 가격 인상'이 51.0%에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중소업체-정부간 소통창구를 통한 수입물량 결정'(37.5%)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수입대두 품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조치에 대해서는 65.2%가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대두를 실수요업체가 직접 수입'이라고 답해, 중소 두부제조업체들은 실수요업체에 대두 수입권 부여가 수입대두 품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

사했다.

한편 수입대두 실수요단체인 한국연식품협회(회장 김기문)의 10개 회원 지방조합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별 대두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지 물은 결과, 9개 조합이 예(90.0%)라고 답했으며, 이 중 8개 조합이 연 말 대두 부족으로 인해 업체가 겪게 되는 문제로 '대두 부족에 따른 생산 중단 또는 축소(88.9%)'를 꼽았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식 품연합회의 aT 직매 수입대두의 당초 배정량 및 실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당초 배정량 대비 2019년 10.3%, 2020년 7.7%, 2021년(예상) 12.9% 수준의 부족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락연식품연합회장은 "정부에서 수입콩 가격이나 수입방식 등에 대해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입콩 수급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산콩 사용 확대를 위해 수입콩 시장 물량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기 보다는, 국산콩 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제도적 혜택 부여 등으로 수입콩 사용업체의 국산콩 사용확대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규격인 인증특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의 7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CCC 등 45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윤종욱 청장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비관세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고 수출시장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유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야구 기금 2천만 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야구 꿈나무들 위해 써주세요'

NH농협은행 전북, 유소년 야구 기금 20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유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야구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2021 전라북도 야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린 전주 전북초에서 진행했으며, 장기요 본부장,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와 함께 유소년 야구 기금을 전달했다.

산남초, 군산신동초, 군산중앙초 등 4개 초등학교 야구 꿈나무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유소년 학생들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스포츠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은 지역 유소년 스포츠 육성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최저연금 운영국가 사례연구' 국민 참여 최우수 제안으로

국민연금, 연구과제 공모전 시상식... 총 22건 선정

국민연금, 연구과제 공모전 시상식... 총 22건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30일까지 연금제도 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6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22건 제안 중 최우수·우수 각 1건, 장려 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공단 이사장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포상을 확대하고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 공모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기금의 재정수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접수됐다.

최우수 제안은 '최저연금 운영국가 사례연구와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이 연구 제안은 노인의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 내역할 재정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및 국민연금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청년(2000)세대 포용방안에 대한



연구' 등 참신한 제안들이 선정됐다.

최우수 제안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22건의 제안은 담당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과제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추세를 파악해 향후 연구원 과제 선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최우수 제안 수상자 이예인 씨는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며,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문일 연구원장은 "공모전에서 접수된 아이디어들이 진정한 국민의 생각과 고민"이라며 "연구과제 공모전이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연금-청년 네트워크 구축

국민연금, 전북대와 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8일 전북대학교와 함께 미래세대에 연금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연금·청년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은은오프라인을 통한 공공소통(R)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협업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방송과 온라인홍보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아이디어 도출,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연금제도와 공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고, 공단은 학생들에게 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국민연



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젊은 층에게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연금제도와 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등 긍정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